

* 지난주 강단제목 : 의심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허박국 (합 2:4, 롬 3:23-24)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결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입례송	오르간
★ 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응답송	찬양대
★ 예배선언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경배의 찬양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같이
★ 고백과 용서의 말씀	설교자
★ 주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성서교독	39. 시편 95편 / 인도자와 회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아이가 때문이라 (1-7상)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 다같이
중보의 기도	(1부) 신승훈 장로 (2부) 라종화 장로
성경봉독	시편 32:11(구약 824쪽), 빌립보서 4:4-6(신약 322쪽) / 인도자
찬양	(1부) 삭개오야 내려오라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서로 사랑하라 / 시온찬양대 (현장)

말씀의 선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복음으로 여는 빌립보서- / 설교자

봉헌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교회소식 설교자

★ 결단의 찬송 새 힘을 얻으리라 /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독수리가 날개 치며 하늘로 올라갈 때도다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주의 백성 불드시니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 파송의 말씀 설교자

★ 봉헌기도·축도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김현 장로 (2부) 김경희A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사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영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신혜선 권사 (오후) 임혜연 집사
인도, 설교	(오전) 박범서 목사 (오후) 이현규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양은숙 권사

(오후) 정수환 집사

금요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설교	세계렘넌트리더수련회 이현규 목사
----	----------------------

다음 주 기관보고 : -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목) 박범서 목사

(화) 이현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경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5층 본당에서 아르메니아 선교포럼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 성도분들께서 참석하셔서 237나라와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응답의 시간표로 함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 강사 : 강환국 목사(천안 예수안교회)
 - 선교포럼 제목 및 본문 : 유렵복음화의 첫 성 아르메니아(마19:19-20)
- 강남노회 임원회모임이 7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4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 다음 주 주일(8월 2일) 오후 2시부터 5층 참사랑홀에서 램네프부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예배 후 참사랑집중전도산학원은 없습니다.)
- 7월 31일(금)은 세계램네프리더서론회, 8월 7일(금)은 세계램네프대회 관계로 금요일미기도회 때 기관보고 없이 밤 8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양팀도 서지 않습니다.)
- 교회학교와 각 부서별 여름훈련일정을 두고 헌신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8.2~3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 8.15 청년부 세계청년수론회
 - 8.22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 복음요일 암송과 구원의 길 그리기를 통해 300명집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1층과 5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수요오전예배, 수요오후예배, 금요일미기도회 / 1층 비전홀
 -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오전 11:00~12:20 유치부
 - 오후 2:00~3:20 태영아부
 -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매일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네프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하셔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나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한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준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현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현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한 및 교우소식

-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돈 담임목사 : 7.27 강남노회 임원회모임, 7.28 237화요제자훈련, 7.29~8.1 세계램네프리더서론회)
-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후보 14면에 있습니다.)
-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네프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트릭킵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해숙 권사 010-9430-9862)
 - 수목캘리그래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명 장로 010-2222-7624)
 -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램네프실. (담당 : 임예진 권사 010-6225-9661)
 -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 드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교회소식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팝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기,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탐을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커피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1)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올림픽공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 4) 교육기관 :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인규)
8.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력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훈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전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237화요제자훈련이 7월 28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3. 세계렘넌트트리다수련회가 7월 29일(수)부터 8월 1일(토)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한 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4. 제29차 세계렘넌트대회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창41:38)'를 주제로 열립니다.
 - 1) 세계렘넌트대회는 8월 4일(화)부터 8월 7일(금)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립니다. 현재 2차 등록까지 마감되었으며, 당일등록만 가능합니다.
 - 2) 모든 참가자 가족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현금은 연명별, 숙소와 식사 신청여부, 등록기간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8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1주차	렘넌트부서연합예배(2) / 제29차 2026세계렘넌트대회(4~7, 대구 EXCO)
2주차	장학생 선발공고(9) / PMAW수련회(9~11, 덕평 RUTC), 청소년 777합숙(12~15), 제50차 사랑부렘넌트대회(12~14), 세계청년수련회(15)
3주차	RM부모학교(17), 청소년합숙(중·고등, 17~20)
4주차	장학위원회모임(23) / 237화요제자훈련(25, 덕평 RUTC), 렘넌트데이(29)
5주차	하반기 장학금수여식, 렘넌트부서연합예배(30) / 북미주 산업인대회(9.1~2, 뉴저지 서밋장로교회), 미주 영산업인수련회(9.2)

8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헌금위원	(위원장) 김헌 (위원) 김금남 라종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김경희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6층) 김금남 최진희
안내위원	(위원장) 김경희A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대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장자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해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경희·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2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원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엽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춘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용곤 김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안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정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요한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화 장영호 여준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매명자 산옥희 김태은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성원 박서진 이현주 최영애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정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정웅 전정아 박범사-김진아 심한결 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종화 주재잔-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영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장영균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유승범-주은경 김순호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운진 강현자 장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윤 강공이 임영순 이영순 김주영 조성균-김갑래 정향란 이순근 호민수 최송화 유제숙 전 진 박인자 김휘권 최재경 김일호 김재카-장소녀 김용관-김정순 이은희 김나경 김미자 김순자 손병순-박정수 전은정 나경철-신현식 한영화 임소순 김정연 윤순옥 정민호-이서은 여 명 박난순 홍명숙 조부영 안나근 도정호 김지후-이현주 임혜연 이효숙 임혜미 윤태자 김창균-임예진 유승환-최아현 황혜주 김지수 조현지 방주는 정예승 최영국-김윤지 양은숙 김태운 박찬열 정수환 이민형 김소라 고진순 임정미 권혜경 김승훈-김혜인 이연균 이민수-김숙희 김영희 유영석 한경숙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채송아 여 명 배준서 무명15
십 일 조	유제숙 김순자 정은숙 유충현-강공이 손병순-박정수 조성균-김갑래 한영화-최철규 배준서 오이라 임예진 김순호 김경희 손혜옥
감사헌금	정윤돈 최신영 최송화 윤성희 박진수 유경심 양경심 김휘권 김애경 정민호-이서은 김지후-이현주 김지수 김성도 방주는 이은숙 김 현 최신혜 박영인 한경숙 유경형-리종화 이계옥 박동영-최진희
심방헌금	지복순-임상식-임민재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정윤돈 박범사-김진아 이은희 강공이 임영순 방주는 정예승 유승범-주은경 정수환 조현지 임혜연 김순호 이 명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박지영 김경희
자유센터	정수환 정민호-이서은 방주는 (*2026년도 총계 393,000원) (*2025년도 총계 5,009,000원) *지출총계 500,000원)
헌당헌금	정윤돈 최신영 전정아 이현규-김수진 강공이 최영애 임영순 최철규-한영화 유승범-주은경 정예승 김태운 조현지 정수환 임혜연 임혜미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손혜옥 여 명 무명
장학헌금	김원일-전인숙 강공이 김창균-임예진 유승범-주은경 정수환 김순호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어학연수	정수환
RUTC헌금	조부영 정수환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 7. 15. ~ 2026. 7. 21.)

헌당헌금 (2026년도 합계)	80,318,285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58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8,274,172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497,000원

헌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49,000,000엔 (한화 4,265,500,000원 / 100엔환율=9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헌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은 박점순 이신순 최일숙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A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채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장동주 정동훈 이은순A 김흥기 문길순 김갑래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박은진B 윤소현A 윤대현 윤치현 박현우 감정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라종화	홍경아	유경형 라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김미자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최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식 윤수연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㉔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재 고정호 고정협 스모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원 손보국 이정택 이은순B 이가원
		㉕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코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은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㉖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론 안진성 문경화 안서운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진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유림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여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는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해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대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삼한결 목사 | 총무: 양영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정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정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u>이은숙</u>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u>주재진</u>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u>양은옥</u> 임선규 김태운 김근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u>최명홍</u> <u>이계옥</u>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운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이영순 박준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u>허경열</u>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엽재 <u>양경심</u> 박주은 박주영 김수형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u>김순호A</u>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u>배승찬</u> <u>이 명</u>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u>김하은A</u> 김재승 윤순옥 구자성 <u>송영희</u> 이명재 구유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김도연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u>김영진</u>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를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경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u>김순호B</u>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u>오국환</u>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제숙 고진순 방주는 정문철 이선아 정유희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라종화)	최신혜	이가예	송길호 <u>최신혜</u>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u>장영균</u> 송미경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하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종훈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용 김정B 유정빈
	㉑가락 (정영규)	백소정	정선희	<u>여동훈</u>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는 노은현 손상현 <u>이균재</u> 이순근 이수앤나 허가이 임혜미 송창범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u>신승훈</u> <u>박영인</u>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u>강공이</u> 유승호 전주율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삼한결 정지혜 심주인 심지연 정향란 이민수 <u>김숙희A</u>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식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운 <u>김선옥</u>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정승우

의심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박국

—복음으로 여는 하박국—

하박국 2:4, 로마서 3:23-24

들어가는 말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은혜로 주일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해왔지만 개인적으로 의심나는 것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문이 생기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계속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도 없던 학창시절, 시간만 나면 기독교 서점을 찾아가서 책을 뒤적이며 내 스스로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누군가에게 수동적으로 배우기보다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다면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는 분들을 본다. 어찌 보면 가장 속 편한 신앙처럼 보여 부럽기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무조건 믿는 분들은 인생에 진짜 위기와 문제가 닥칠 때 말씀의 뿌리가 없어 쉽게 흔들리고 만다. 내면의 깊은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치열하게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한다(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3:19-20).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철저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두려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양다리를 걸친 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결코 그런 적당한 신앙인이 아니었다. 그는 차갑든지 뜨겁든지(계3:15-16)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라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과고들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응답을 받아냈다. 흔히 하박국을 단순한 '의심의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처절한 불신앙과 갈등의 끝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해답을 얻어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위대한 인물이다. 인생을 살며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거나 핑계와 변명을 대는 삼류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뱀, 여인에게 핑계를 대다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 반면 직장에서나 학업에서나 "이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치열하게 질문하는 사람은 더 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류인생이다. 핑계 대는 자와 해답을 찾기 위해 질문하는 자는 결보기엔 비슷해도 그 결말은 천국과 지옥, 천사와 마귀만큼이나 다르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히11:1). 돈이나 조건 때문에 행복을 쫓는 사람은 평생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복음의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속에서 이미 행복을 누리며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것이다. 최근 운동현장에서 솔빈이라는 아이가 있다. 아버지가 워낙 엄격하여 아이를 혹독하게 가르쳤다. 아이가 힘들어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부모님이 안 개질 때조차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 아이의 끈기 있는 모습에서 이미 국가대표의 자질을 보았고, "미래에 금메달을 딸 너를 위해 미리 사진을 남겨둔다"며 엄마의 허락을 받고 함께 셀카를 찍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과 저 교회는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가야 한다.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승리한 결과를 향해 가는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 단위의 순이익을 창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왔다. 비록 나는 목사가 되어 돈을 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조 단위의 이익을 내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위대한 산업선교의 거부가 탄생할 줄 굳게 믿는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등반기는 실패를 염두에 두고 오르지 않는다. 오직 정상을 정복하겠다는 확신만을 품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은 철학적이고 근본적이지만 우주의 창조와 기원은 현대과학이나 실험실의 검증으로 밝혀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창조는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형이상학)의 영역이기에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진화론 역시 수백 년 전 학자의 이론일 뿐, 결코 실험으로 증명된 과학적 진리가 아니다. 인간의 30억 쌍의 DNA염기나 염기서열이 조금만 어긋나도 생육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화론은 성립할 수 없다. 삼상에 다니는 한 박사 집사님은 "아기를 키워보니 누군가의 철저한 돌봄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진화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고백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묻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성인으로 지으셨다. 나는 설령 뱃속까지 우

상을 숭배하는 불신자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도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완벽한 복음의 논리를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기에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자녀가 인격적인 존재이기에 부모의 말을 거역하듯 인간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책임지듯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씻어주셨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 이는 철저히 '나의 이익'을 조건부로 삼는 기복적인 2등 믿음이다. 진정한 1등 믿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주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성경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직장이든 신앙생활이든 끝까지 꾸준히 버텨내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한때 내가 모셨던 목사님께서 "목회 오래 하신 분과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이 가장 존경스럽다"고 하셨을 때, 충각이었던 나는 잘 몰랐으나 살다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낀다. 30년, 40년을 묵묵히 버텨내며 후대에게 귀중한 신앙과 산업의 유산을 남기는 성공적인 여정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서론

오늘 살펴볼 하박국서를 보면, 지난 번 공부한 나훔서가 앗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이 하박국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 배경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렘2:4, 롬1:17, 갈3:11, 히10:38)"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바로 하박국에게 주어졌다는 배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 많은 성경에 등장하며, 마르틴 루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 말씀은 의심 많은 하박국에게 하나님 이 축복으로 주신 메시지이며, 참된 믿음의 원조라 할 수 있다. 하박국은 처음부터 덮어놓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믿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기도 그 뜻을 알고자 치열하게 질문하여 해답을 얻어낸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하박국의 의문과 하나님의 답변

1) 첫 번째 의문 : 어찌하여 유다 백성 안에 죄악이 난무합니까? 하박국은 1장 3-4절에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라며 하나님께 절규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어떻게 그토록 겁탈과 강포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지 울분을 토한 것이다. 오늘 날에도 끊임없이 이념을 나누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교회가 문제라느니, 정치인이 문제라느니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더 문제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Projection,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무의식적 결핍, 분노, 두려움 등을 타인의 탓으로 돌려 부정하려는 방어기제)'라고 부른다. 자신의 내면이 복음으로 치유받지 못해 지옥처럼 불행하니까 밖을 향해 끝없이 분노와 핑계를 쏟아내는 것이다.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명확히 답하셨다. "네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분노하느니? 그렇다면 내가 강력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 타락한 유다 백성을 철저히 멸망시키고 심판하겠다."

2) 두 번째 의문 : 어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놀라며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누가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기에도 잠잠하시나이까"라며 따졌다. 갑자기 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1장 17절에서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항의했다. 당시 고대 전투에서는 적군을 향해 거대한 그물을 던져 사람들을 짐승처럼 움아매어 노예로 끌고 갔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도 저토록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바벨론을 들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이것이 과연 맞느냐며 또 다시 "어찌하여"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참된 믿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늘 이와 같다. "어찌하여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인가"라며 끊임없이 불평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 나를 진정으로 행복

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음으로 인생의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만과 의문을 품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목사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하셨다. "내 자녀가 미래에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가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크게 써서 붙이라는 뜻이다. 100년 전 길거리에 오물이 넘치고 전염병이 돌던 비참한 조선 땅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절망 속에 기도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훗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문화와 남성들에게 열광할 것이다. 한국의 첨단 반도체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라는 환상을 크게 써 붙이라고 하셨다면 누가 믿었겠는가.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라. BTS가 전 세계를 휩쓸며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얼마 전 45개국이 모인 로봇경진대회에서 출전국 90% 이상이 중국제 로봇부품을 가져다 조립만 한 반면, 대한민국 부산대학교 팀은 100%자체기술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당당히 1등을 차지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렇게 놀랍게 들어 쓰시는 것이다. 인권과 교권이 무너져 내리고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과 무기력에 빠진 현대교육의 붕괴 속에서 세상 학자들은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오직 복음을 가진 교회만이 진정한 해답이다. 교회주일학교의 시스템에서 근대 공교육과 대학교육이 과소되었듯, 세상이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는 다시 진리의 원조인 교회로 돌아가 시대를 살려내야 한다.

2. 허박국이 깨달은 복음과 믿음

1)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2:4) 갈등하는 허박국에게 하나님은 허박국 2장 4절을 통해 답을 주신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며 그 속엔 거짓뿐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큼 훌륭하고 정직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단번에 끝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복음을 믿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모든 면에서 남의 죄를 탓하기보다 너 자신부터 온전하게 살아가라(마5:48, 마7:3). 빛이 되어라(마5:14-16). 항상 기뻐하라. 인상을 찌푸리지 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살전5:16-18).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상태이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파야만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나 역시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한다. 그래야 짜증을 내지 않고 성경을 읽으며, 그래야 비로소 성공자의 길을 걷게 된다.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 성경을 읽는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게임에 빠져 망하거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의 타락과 마약에 망하고 귀신 들리는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사역을 할 때 전과 40범, 50범에 달하는 마약중독자들을 만났다. 어느 날 밤 그들에게 "솔직히 환각이나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모인 사람의 90% 이상이 손을 들었다. 손을 들지 않은 한 청년에게 이유를 묻자, "저는 귀신은 안 보지만, 피투성이 여자가 계속 쫓아오거나 방바닥을 뜯어보니 시체가 가득 쌓여 있는 끔찍한 악몽을 매일 꿈니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영혼과 삶이 사탄과 마약에게 완전히 장악당해 있음을 처절하게 인지하고 있다. 차라리 이중, 삼중의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 살아가는 교만한 종교인들보다 철저히 바닥을 치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이 범죄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훨씬 진실하고 갑갑하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군가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때,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정확히 나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우리는 남을 지적할 자격이 없는 300% 철저한 죄인이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은혜의 구원을 선포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 하나만으로 값없이 거저 선물 받은 것이다.

2)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 의 영광이 가득하리라(렘2:14) 하나님은 허박국 선지자에게 237나라 5000종족 살리는 선교의 위대한 미래를 보여주셨다. "하나님, 이런 상황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 언제 복음화가 되고, 언제 사람이 거듭나며, 언제 세계복음화가 되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 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라고 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통하여,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는다. 허박국 2장 14절의 말씀성취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WRC(세계 램프대회)에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상관없다. 못 가시는 분은 현장에서 300%응답을 받고, 가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더 큰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언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역사를 이룰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를 기필코 세우실

줄 믿는다.

3) 오직 여호와와는 성전에 계시니 잠잠할지이다(합2:20)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조급하게 의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질투하고 투덜거리지 말라. 갈등하지 말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 세상에는 불만, 의심, 의견, 질문이 많다. 그러나 진짜 성령충만한 사람은 잠잠하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14:13)"고 하지 않았던가.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합2:20)"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능력을 가지고 시간표에 따라 일을 이루어가니 너는 잠잠히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의심하지 말라." 허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했으며, 오직 예배에 성공하며 강단말씀을 붙잡았다. 그 결과 3장에서 허박국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오직 믿음만을 고백하는 선지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4) 허박국의 절대 믿음 고백(합3:17-18)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을 해주신다. 허박국의 질문과 항의는 사실 불평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였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사람 앞에서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라. 그것이 기도이다. "어찌하여 우리 집,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직장은 이렇습니까?"라고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과 해답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결국 허박국은 초특급믿음, 1등 인생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 허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허박국의 고백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모든 육신적 조건이 무너지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는 절대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올 때까지 집중하여 기도하라. 조건과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기도를 통해 내 속사람이 달라지면 결국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내 경험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항상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라.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결론

결론이다. 어떠한 갈등과 의문,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기도로 정확한 답을 얻고, 나의 현장에서 사단의 망대를 꺾는 복음의 70만대를 세팅하라. 그리하여 237개 나라, 5천 종족, 1천만 제자를 세우는 허박국과 같은 '복음의 절대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제능체임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킹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래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렘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걸 010-8206-2024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원로목사	최정웅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목사(전도부)	김양순 010-8328-0132		
전도인	최진희 이미자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장영균 라종화 김현 여준석 감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근재 전민식 강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윤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송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3층 제2랩넌트실
	오후 2:0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어린이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새벽기도회	금 오후 8:00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중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교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정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희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혜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⑭ 박종혁선교사(후쿠오카) ⑮ 이준형선교사(영국) ⑯ 이광식선교사(프랑스)
 ⑰ 전경무선교사(필리핀 세부) ⑱ 보바(우크라이나) ⑲ 유영애선교사(위싱턴) ⑳ 이응남선교사(미국)
 ㉑ 정석왕회장(사회복지사협회) ㉒ 배문성선교사(필리핀 팔라완)

군파송자 (4)

[육군] 송영민 나종훈 이주형 안도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교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운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라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넌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